
2021년 제33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8. 13. ~ 8. 1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8. 13.	시청률	0.030

【총 평】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겼고, 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등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청년층 타깃의 '열정페이' 개선책, '중고거래' 인기를 비롯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나들이, 한적한 휴식처에서 읽을 만한 도서 추천 등 다채로운 소식을 전했다.

특히 주민센터 화장실 유니버설 디자인 호응은 새로운 정책과 주민 반응, 사회적 약자 고려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된 완성도가 높은 리포트였다. '힘내라! 대한민국' 천리포수목원 무궁화 활짝은 나라의 꽃인 무궁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태안 천리포수목원 '무궁화동산'과 '무궁화 품종보전원' 등 애국심 자극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구성 및 내용】

-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개선책 마련
교육부의 개선책으로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현장실습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전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체는 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실습 지원비를 지급해야 하며 산재 보험과 상해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 사고나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은 사전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 학력·경력·나이 제한 없는 '공개 오디션 연구자' 선발
경기도의 과학기술 연구자 선발 공개오디션은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이 10명의 연구자가 선발되었다. 지자체 최초의 새로운 시도로 오로지 열정으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나가는 인재를 선발하는 참신한 기획이었다.
- 가성비 중시 청년세대 '중고거래' 인기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중고거래' 문화를 소개했다. 대학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양한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 불필요한 옷과 생활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 팔고 있다. 특히 '리셀 재테크' 등의 현상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젊은 층의 소비 특징이다. .
- 주민센터 화장실 '유니버설 디자인' 호응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유니버설 디자인 화장실을 소개했다. 커다란 화장실 표시, 발로 문여는 풋스위치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어떤 제약도 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누구나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힘내라! 대한민국' 천리포수목원 무궁화 활짝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342개 품종 2천 5백 그루의 무궁화 꽃밭이 한창이다.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꽃을 피우는 무궁화가 절정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우리 민족의 은근과 끈기를 상징하는 무궁화의 매력을 느껴졌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8. 13.	시청률	0.024

【총 평】

‘책마을 해리포터와 복분자 부부’편은 전북 고창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책 짓기에 나선 책마을 촌장과 고창의 특산물인 토종 복분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50대 부부의 삶이 꾸밈없이 그려졌다.

특히 책마을 해리의 탄생배경과 함께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출판캠프,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밭매다 탄짓거리라는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또 50대 귀촌부부가 토종 복분자 재배에 도전하고 티격태격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구성 및 내용】

고인돌 유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랜 삶의 흔적을 가진 고창이 소개되었다. 20년 가까이 도서편집자로 일한 주인공은 책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2006년 폐교를 인수하면서 고창의 한 시골마을에 책마을 해리를 만들었다. 오래된 폐교에 새 생명력을 불어넣은 주인공의 작업과 마을 어르신 교실 등 지역사회에 순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잘 소개되었다. 특히 항상 일손이 부족한 주인공의 일들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책마을 해리의 탄생배경과 함께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출판캠프’,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밭매다 탄짓거리’라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전했다. ‘출판캠프’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지역 아이들과 함께 책을 출간하는 행사이다. ‘밭매다 탄짓거리’는 마을 어르신들과 글공부를 하고 책을 만드는 마을 학교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벌써 6권의 책들이 탄생되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책마을이 되는 길이라고 보았다. 특히 동생이 씩 준 깨죽을 못 먹고 세상을 떠난 오빠를 그리는 사연이 뭉클했고 이를 울먹이며 낭독하는 진행자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고창에서 복분자 농사를 짓는 부부의 사연도 전했다. 17년 전 남편의 고향인 고창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남편은 농사를 담당하고 아내는 인터넷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 중 대부분을 밭에서 보내는 남편은 최근 토종 복분자 묘목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3월부터 고창 복분자 농가에 토종 복분자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외래산 복분자보다는 조금 늦게 수확을 시작하는 만생 복분자라고 한다. 또 2019년 고창 귀농인들이 결성한 사회인 야구단의 단장 임무를 맡으며 야구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귀농인들과 정보도 공유하는 모습도 소개되었다. 복분자 갈비찜과 우뭇가사리국 등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로 만든 음식 소개도 흥미로웠다. 또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명소 고창 갯벌 소개도 지역 알리기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 넓은 갯벌을 달리는 트럭 안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바다의 모습과 어울려 자유롭고 생동감 있게 소개되었다. 낯선 곳으로의 여행에 대한 기대와 궁금함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으며 자연이 주는 계절의 변화와 그 변화가 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8. 14.	시청률	0.123

【총 평】

“나는 장화신은 CEO입니다.”편은 소 3마리로 축산업에 뛰어들어 논밭 200마지기, 소 300마리를 길러내고 있는 44년차 복합영농 농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현실적으로 잘 그려냈다. 특히 저서 ‘장화 신은 농촌 CEO’를 통해 농촌에서 성공하는 방법, 성공적인 농촌 생활을 위한 준비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공은 정확하고 정밀하게 계획한 이에게 다가온다.”며 실천을 통한 삶을 보여준 주인공 부부의 부지런한 인생은 비단 농부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시청자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값진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축사를 돌보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주인공의 부지런함과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구성이었다. 특히 어느 장면 하나, 어느 표정 하나 농부의 자존심과 일꾼으로서의 자신감이 없는 곳이 없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농부의 성실함을 보면서 왜 스스로 CEO라고 하는지 이해되었다. 논에 자주 가서 돌봐야 농사가 잘된다고 새벽 4시 반에 논을 살피고, 소 농장을 찾아 소를 돌보는 그의 부지런한 일과가 성공의 비결이었다. 이런 아버지 모습에 회사 생활보다 비전이 좋아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다는 아들은 “아버지의 반만이라도 닮고 싶다”며 훈훈한 가족애까지 담아냈다.

주인공은 부친의 담배 농사를 돕다가 복합 영농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신념대로 농업을 확장했다. 아내와 셋째 아들이 함께 일을 돕고 있고, 드론으로 비료를 뿌리고 사료용 대체작물을 재배한다. 전통과 신기술이 활용되는 영농 현장을 잘 보여주었다.

소사육과 농사에도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 농업 방식을 오랫동안 고집해왔고, 농업만으로도 잘 사는 방법을 이웃 농부들과 나누는 모습이 잘 그려져 기획의도와 조화를 이루었다. 스스로를 농사꾼 대신 CEO라고 부른다는 주인공은 큰골농장의 주인으로 암소 개량사업을 통한 명품화와 영농 후계 인력 육성에 기여하였고 꾸준히 사업을 구상하고 확장해온 44년차 농부이다.

저서 ‘장화 신은 농촌 CEO’에는 “나는 시골 농사꾼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나의 삶이 누추할 것이라 지레 짐작하지 않기를 바란다. 평생을 땅 위에서 현역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주인공의 인생을 대변한 내용이 쓰여 있다.

성장은 기록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영농일지, 농장주보, 경영일지도 매일 꾸준히 써서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하는 모습은 귀감이 되었다. 최신 전자 경매 시스템으로 한우경매 시장의 모습은 옛 우시장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자연과 함께하는 정감 있는 모습은 고향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8. 15.	시청률	0.000

【총 평】

‘8월 장마철 북한 수해 상황’을 짚어보고 이로 인해 심각해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전했다. 수해 상황부터 장마철 피해가 심각한 이유, 북한의 수해와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등을 짚어주었다. 코로나19와 함께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식량난이 악화된 실상을 통해 자포애로 지원해주자는 제안을 펼쳤다. 또 북한 예술인을 통해 북한의 음악 정치와 예술인들의 어려운 실상을 전해주었다.

【구성 및 내용】

‘친절한 이슈 토크’ 코너에서는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연이은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전했다. 함경남도에서 8월 1일부터 2일까지 113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에 1,170여 가구가 파괴되거나 침수되고 주민 5,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였다고 전했으며 이런 폭우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의 최근 수해 상황을 조선중앙TV 영상을 통해 보여주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연중 강수량은 유사하지만 그간 북한의 장마철 피해가 심각한 이유로 일기예보의 부정확성, 산림의 황폐화, 수해복구 시스템의 문제점을 꼽았다. 북한 면적의 73%가 산림인데 그 중 32% 이상이 황폐화되었고 이는 북한의 홍수 사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방시설 및 사전 경보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점을 지적하였다.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중장비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우 중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복구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수해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전문가는 북한의 수해로 인한 댐 방류는 우리나라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동포애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이슈텔링’에서는 북한 예술인 출신 패널리 출연해 북한의 음악 정치와 북한 예술인의 실상을 전했다. 자체 스타를 발굴해 한류문화 확산을 차단하고 북한 노래 띄우기에 나선 북한당국이 김정일 위원장 때 내부 결속용으로 활용됐던 북한의 음악정치가 최근 다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고난시기 때 마다 음악을 통해 사상교양과 충성심을 끌어냈다고 한다. “만발의 총알보다 한 곡의 노래가 만 명의 심장을 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하였다. 음악 정치의 변천으로 김정일 세대에서는 당과 관련된 음악을 했지만 김정은 세대는 현대식 스타일로 어느 정도 개방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공연이 끝나고 예술인들과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명 예술인들은 나라에서 의식주를 지원받는 것과 반대로 대부분의 예술가는 힘든 현실임을 전달하였다. 북한에서는 가수도 공무원으로 등급이 있고 평가를 받아 승진하는 체계로 사실상 인민배우급 가수가 아니고서는 국립예술단원으로 선발된 후에도 모두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8. 15.	시청률	0.010

【총 평】

‘끈대 할매’와 MZ 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도 얻는 프로그램 취지가 돋보였다. 한국 사회의 관계주의가 개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회적 갈등인 세대 간 불통을 나타내는 ‘끈대’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세대 간 화합을 구현해 눈길을 끌었다.

제1화 ‘끈대의 정의’, 제2화 ‘착한 끈대’에 대해 이야기를 전개했는데 끈대와 MZ 세대 각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궁금증과 몰입도를 높였다. 끈대의 정의에서는 MZ 세대가 바라보는 끈대와 끈대할매가 바라보는 젊은 세대 그리고 샌드위치 세대인 수발러 허준 씨를 통해 각 세대별 사고방식과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착한 끈대에서는 전화와 문자사용으로 느끼는 세대 간의 차이, 좋은 끈대와 착한 끈대 구별법, MZ 세대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짚막짚막하게 나누며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구성 및 내용】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첫 방송은 끈대 할매를 대표하는 배우 김용림 씨와 40대를 대표하는 허준 씨 그리고 MZ 세대를 대표한 배우 왕재민 씨가 만나 끈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70대와 40대 20대 사이의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세대 차이가 거침없이 드러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생각이 솔직히 드러나 이해의 폭을 좁히는 시간이었다.

‘끈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 시작해 ‘아무리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끝났다’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끈대는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20대의 의견과 “어른이 너보다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또 끈대 할매는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은 별로 안 하고 세상 탓만 한다.”고 말했고, 20대는 ‘시대가 다르니 환경도 다르고 요즘은 수저론이 대세’라고 말했다.

‘젊은 끈대’ 현상에 대해서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동시에 아랫사람의 눈치도 보는 40대의 비애에 공감했다. 또 통화 보다는 문자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생각과 MZ 세대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왕재민 씨가 “부모세대가 너무 빠르게 잔소리를 한다.”며, “조금만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면 젊은 세대들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말했을 때 김용림 씨가 이 말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인정하면서 “맞아, 그건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공감한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고,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는 최근 화두가 되는 주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재미있게 구성하면 시청자의 공감과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8. 15.	시청률	0.053

【총 평】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한 그린뉴딜의 이슈, '지속 가능한 순환,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집중탐구' 코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다루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리수거가 된 폐기물 중 일부분만 재활용이 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또 '그 곳의 뉴딜' 코너에서는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새활용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취재하였다.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새활용이 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 코너도 있었고, 다양한 친환경 스타트업 회사를 소개해 청년들의 창업에 관한 조언도 전하였다.

【구성 및 내용】

'집중탐구'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생활폐기물 중 가장 많은 양에다 그 증가속도도 엄청난데, 코로나19 발생 후 생활폐기물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비대면 시대에 증가한 택배 서비스와 음식 배달 등을 통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욱 증가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음에도 플라스틱 자체가 재활용되기 어려운 점과 선별시스템이 낙후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정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규제를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는 대책도 함께 소개하였다. 재활용 산업의 규모가 2017년 5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및 고품질 재생원사 개발 분야 진출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을 전했다. 새활용 소재 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증가를 실감하게 해 주었다. 더불어 재활용(Recycling) 산업은 공장에서 폐기물을 대규모로 재생 활용하도록 하는 반면, 새활용(Upcycling) 산업은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새활용 산업의 규모는 재활용 산업에서 아주 미비하지만 공장형 산업을 탈피하는 것이므로 친환경적 기업운영의 마중물이 되고, 소규모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여 청년창업이 활발한 분야라는 유익한 정보도 전하였다. 전문가들은 재활용을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활용을 하는가, 순환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곳의 뉴딜'에서는 자원순환 정책과 새활용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취재하였다. 폐기물을 수거, 세척하고 규격화와 분류과정을 거쳐 전시하고 판매하는 순환 경제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는 투명패트병 수입을 줄이고 국내 투명 패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여 고품질 재사용을 꾀하고 있다는 현황도 전했다. 전반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순환 경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느낀 기업이 앞장서서 친환경 원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물건을 유통해 수거 후 다시 재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8. 15.	시청률	0.095

【총 평】

반국가단체 허위조작-오송회 사건'편에서는 1982년 5공화국 당시 국가권력의 용공조작 사건인 오송회 관련자들이 26년 만에 누명을 벗은 현대사의 비극이 재조명되었다. 당시 고교교사들이 모여 5.18 위령제를 올리고 불온서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반국가단체 구성과 찬양 고무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옥고를 치른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당시의 무모한 인권유린 단면을 알 수 있게 했다. 국가기관의 허위조작이 개인과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에 어떤 해악을 초래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구성 및 내용】

'오송회 사건'을 소재로 하여 1982년 신군부 정권하에 9명의 전·현직 교사를 불온세력으로 몰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건을 전했다. 1982년 뜻이 맞는 교사들끼리 뒷산에서 5.18 위령제를 지냈던 주인공은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온세력으로 몰렸다고 밝혔다. 5명의 교사들이 모여 오송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했던 단순한 친목단체가 반국가단체로 몰린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교사간첩단체로 몰았고 이들은 고문을 받아 결국 일부는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 한 국회의원은 당시 교사들을 고발하라는 경찰의 회유와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혁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해 편하게 나눈 대화와 모임이 불온세력, 반국가단체로 몰린 이유가 되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교사들이 잡혀 들어가면서 학교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그 피해가 전가되었고, 전두환 정권은 오송회 사건을 빌미로 선량한 교사들에 대한 감시와 핍박이 더했다는 소식이 안타까움을 전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주인공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복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으로 전두환 정권 아래 고문과 감금 등 고통의 삶을 살아온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당시 전주대 공분실로 강제 연행된 교사들은 길게는 23일에 달하는 고문과 198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암울한 시대였음을 실감하게 하였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주지검이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가 불법연행,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사법판단을 했다고 보았다. 이에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 등에 대해 국가의 공식사과와 화해조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사법부는 2008년 11월 재심에서 피해자들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이 교사를 체포해 갖은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실상과 기록을 무시하고 유죄를 인정한 당시 사법부의 횡포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낱낱이 고발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8. 15.	시청률	0.016

【총 평】

‘한일 관계 4년을 돌아보다’편은 한일관계 3대 현안을 각 부문별로 짚어보고 쟁점을 분석한 뒤 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한일간 쟁점을 분석하고 외교적 해결방안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여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또 현재의 한일관계의 갈등을 일본인 트로트 가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디테일한 사례 중심, 쟁점이슈 분석, 대안 제시 등의 구성이 한일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설득력을 제고하였다.

【구성 및 내용】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 4년을 돌아보다’라는 부제로 한일관계의 주요일지와 양국 간 현안에 대한 간극을 짚어보았다. 특히 양국 간 현안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위안부, 강제징용 과거사 갈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시작부분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심해 무대에 설 수 없게 된 가수 요시다 미호의 사례를 통해 반일감정이 고조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아베총리와 첫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5월 18일 대일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였다. 2018년 5월 28일 한일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TF가 출범했지만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 이듬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하며 한일 경제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러나 수출제한이 한국의 소재부품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 내에서 아베 정부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에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하던 일본 기업의 피해가 많았고 수출 규제조치의 철회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며 한일 관계는 장기간 악화의 길로 들어섰고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는 이런 갈등을 더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결정을 발표했고 이에 한국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일본은 방사능 농도를 낮춰 수십 년간 천천히 방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강제징용에 관한 갈등으로는 2015년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타결했고 그로부터 2년 후 위안부 TF는 2015년 합의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승소판결을 내리며 양국 관계는 냉각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올해 6월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고 피해자가 낸 2차 소송이 각하되는 상반된 결과의 판결이 공존하고 있다.